

##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조 무 용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김 정 인<sup>†</sup>

다양성관리연구소

본 연구는 스톱킹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서 스톱킹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톱킹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일차적으로 남녀의 스톱킹 문제 인식을 조사하고, 이어서 관련 변인으로 선정된 스톱킹 통념,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가 성별로 어떻게 인식되고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 태도에 따른 스톱킹 통념수용 정도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87명의 응답자(남 86명, 여 201명)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빈도분석, t-검증,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태도에서 조사 대상자들은 스톱킹을 구애과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바라보았으며, 동기는 상대에 대한 '통제나 지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평등의식은 여자들이 높았고, 스톱킹통념, 성차별주의는 남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스톱킹통념을 덜 받아들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톱킹통념수용도가 높았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서로 간에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스톱킹 통념 수용에 대한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 태도의 설명력을 확인한 결과 성평등의식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에 따라 스톱킹통념수용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톱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스톱킹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아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념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평등의식 함양과 성차별주의 타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스톱킹, 스톱킹에 대한 태도, 스톱킹 통념,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

<sup>†</sup> 교신저자 : 김정인, 다양성관리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9 금호베스트빌 1차 158-204

E-mail : kji820@hanmail.net

## 서론

스토킹에 대한 개념규정과 더불어 심각성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그러한 행동들을 스타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일방적 구애 혹은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은 1980년 존 레논 사망, 1981년 레이건 저격사건, 1989년 미국의 여배우 레베카 셰퍼의 살해 사건, 1997년 디자이너 베르사체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레베카 셰퍼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계 최초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잇달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까지 8번의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스토킹 문제는 최근 들어 유명인에 대한 일련의 납치 혹은 폭력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게 되었다.

스토킹은 법제정 좌절로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헌상의 정의를 인용하면 “상대가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요한 접촉(뒤쫓기, 전화·편지, 이메일, 선물공세를 통한 집요한 구애, 위협·협박 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2000). 이와 같은 스토킹은 범죄로 규정되기 전까지 괴롭힘(harassment), 성가심(annoyance), 그리고 단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한 유형으로 지칭되었을 때였었고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발생율, 성별차이, 관계, 위협 및 폭력적 행동에 관한 175개 연구의 메타 분석에서, Spitzberg와 Cupach(2007)는 여성들은 생애 동안 평균적으로 8-32%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고, 남자들은 2-13%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2003년도 연구에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성이고, 연령대는 18-29세이며, 남성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의 행동은 관계를 정립 혹은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상해의 위협을 포함하는 감시와 의사전달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pitzberg & Cupach, 2003). 무엇보다도 이들 자료들은 스토킹은 유명인만이 아닌 어느 누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Amar, 2007; Buhi, Clayton, & Surrency, 2008; Jordan, Wilcox, & Prichard, 2007)은 대학생들의 대략 21% 정도가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13%-52.4%가, 남학생들은 11%-23.2%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4%의 여학생과 17%의 남학생이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Fremouw, Westrup, & Pennypacker 1997). 최근에 McNamara와 Marsil (2012) 역시 미국에서 1,57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킹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가 확인 스토킹 피해경험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중 12%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발생율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들 사건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고 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Spitzburg와 Cupach(2007)는 자신들의 연

구에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보고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2년간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Björklund 등은 핀란드 대학생 6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중 1/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스토킹 사례를 경험하였고, 스토킹의 반 이상은 아는 사람(55%)이고, 25%는 전 파트너였으며, 모르는 사람은 19%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으며, 스토킹 지속기간은 피해자와 스토킹 사이의 이전관계와 상관이 있었다. 파트너 관계였던 스토킹들이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스토킹 기간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Björklund, Häkkanen-Nyholm, Sheridan, & Roberts, 2010).

이러한 스토킹은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킹 사례의 빈도와 심각성이 점증할 경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이것은 그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Spitzburg, & Cupach, 2007, Tjaden & Thoennes, 1998; Tomas, Purcell, Pathe, & Muellen, 2008). 스토킹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athe와 Mullen(199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는 스토킹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종종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거나, 약물남용,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공포심 및 위장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스토킹 피

해자들은 주요 삶의 붕괴로 고통을 받으며 불안, 우울증 및 외상(trauma)의 증상을 포함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으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국 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저질러진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강요 행동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일 수 있는 예상이 가능한 반응들이다(Pathe & Mullen, 1997). 이러한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은 다니던 학교, 혹은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스토킹은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사안이 되었다.

#### 스토킹의 정의와 특징

##### 스토킹의 정의와 행동유형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자들은 심리학적, 법적, 사회적 관점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스토킹을 분석하고 기술하려는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 그 중 Westrup(1998)은 스토킹을 (a) 특정 개인(표적, 즉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향해진, (b)표적에 의해 달갑지 않고 침해적인 것으로 경험된, (c)표적에게 두려움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행동 집합들의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몇몇 연구자들은 스토킹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Pathe와 Mullen(1997)은 스토킹을 한 개인(스토킹)이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침해와 의사전달로 다른 사람(스토킹 피해자)을 괴롭히는 행동 집합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Meloy(1998)는 한 개인이 위협

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행동적으로 침해하는 지속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Sheridan과 Davies(2001)에 따르면, 결국 스토킹 현상은 원치 않는 반복된 관심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 의해 지각된 최악의 감정(공포심 유발)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성의 측면에 입각해서 보면 스토킹은 직장에서 그리고/혹은 사생활에서 한 번의 행위로 폭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타 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별 행동으로 하나 하나 떼어 놓고 보면 폭력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개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신·신체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적 행동이다. Sheridan, Gillet 및 Davies(2000)도 스토킹은 직장과 사생활에서 다른 형태의 괴롭힘과 폭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점은 행동들의 반복성/지속성을 들고 있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의 핵심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 정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령(646.9)에서 스토킹이란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치근대거나 괴롭히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스토킹 관련 법률은 스토킹의 일련의 행위를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reasonable person)이라면 신체 안전과 생명위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이정호, 2004).

이러한 스토킹은 스토킹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Melloy와 Gothard(1995)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으며, 40%는 전화를

했고, 25%는 편지를 쓴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접촉의 주된 방법으로 전화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Harmon, Resener, & Owen, 1995; Hall, 1998). Mullen과 그의 동료들(1999)은 전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촉방법이지만, 86%의 스토킹은 공개적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조사(McNamara & Marsil, 2012)에서는 학생들에게 가해진 스토킹 행동으로 원치 않는 전화/걸고 끊기(24.2%), 원치 않는 메시지(20.7%), 원치 않는 선물/이메일(17.5%), 기다리기(13.5%), 자동차로 따라가기(13.1%), 뒤쫓거나/갑자기 등장하기(12.1%), 기물파손 혹은 파괴(12.1%), 사적인 정보(9.3%), 이메일 들춰보기(9%), 지켜보거나 감시하기(8.9%), 전화 모니터하기(7.2%), 협박(위협)하기(6.3%) 등과 같은 유형들을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들 중 일부는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의 행위만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스토킹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행위가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과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 실태를 연구한 Jones(1996)는 경찰에 스토킹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한 7,472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80%는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대다수는 전배우자(33%), 우연히 알게 된 사람(20%),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14%), 혹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5%) 등에 의해서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단지 전체 피해자의 8%만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Tjaden과 Thoennes(2000)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18세 이후에 강간, 신체폭행 및 스토킹을 당한 모든 여성의 64%는 현 혹은 전남편, 동거인, 남자친구 혹은 데이트 상대 등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에서도 스토킹의 대부분은 전남편이거나 전 연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Mullen, Parhe, & Purcell, 2000). 이렇듯 스토킹 행위는 낯선 사람보다는 서로 아는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들(McEwan, Mullen, & MacKenzie, 2009; McEwan, Mullen, MacKenzie, & Ogloff, 2009)을 보면, 낯선 이들은 이전에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스토킹자들에게 비해 스토킹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적었고, 신체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훨씬 적었던 반면에, 몇몇 주요 경험적 연구들(Hall, 1998; Kienlen, Birmingham, Solberg, O'Regan, & Meloy, 1997; Parhe & Mullen, 1997; Tjaden & Thoennes, 1998)은 스토킹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친밀한 관계였을 때 가장 흔하며,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응용연구(McEwan, Mullen, MacKenzie, & Ogloff, 2009)에서는 전-파트너였던 스토킹자들이 낯선 스토킹자들에게 비해 더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스토킹이 개시되는 시기는 스토킹자가 희망하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관계의 청산 이후였다고 한다(Tjaden & Thoennes, 1998). Pearce와 Eastal(1999) 같은 연구자들은 현장 연구를 통해, 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의 스토킹에 관한 오지각이

이들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법적 조치 혹은 도움을 청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잘못된 태도 혹은 인식으로 인하여 사건인지도 쉽지 않고 이 사안을 애정문제화 하여 적극적인 도움 요청도 주저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Pearce와 Eastal(1999)의 연구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나는데 이들의 연구결과 스토킹 사건에서 전-파트너였던 스토킹자들은 낯선 스토킹자들에게 비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적었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적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구성원들의 스토킹을 바라보는 태도나 통념이 스토킹 예방과 피해구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 스토킹 통념과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와 관계

##### 스토킹 통념

스토킹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태도와 신념이 바로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myth)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강간통념인데 이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어온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와 신념들”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이러한 강간통념은 강간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난을 받고 강간범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신념들을 양

산해 낸다(Lambert & Raichle, 2000). 강간통념과 더불어 등장한 또 다른 통념은 성희롱에 대한 것이다. 성희롱 통념은 “성희롱에 관한 편파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잘못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념은 남성의 성희롱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특히 이러한 통념에 대한 인식 및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여성폭력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인식을 어렵게 만들거나 폭력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며,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의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Egan & Wilson, 2012). 반면 남자에게 있어서 강간통념의 수용은 강간성향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Malamuth & Check, 1986; Quackenbush, 1989), 결국 이것은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강간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강간에 버금가는 성적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토킹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Copson과 Marshall(2002)은 사실은 아니지만 스토킹을 정당화하고 축소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도록 작용하는 신념과 태도들이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Spitzberg와 Cadiz(2002)도 스토킹의 지각은 미디어의 표상에 의해서 형성된 일반적인 스토킹 고정관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Sinclair(2012)는 스토킹 행동에 대한 관용을 조장하는 태도의 집착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강간통념수용과 관련된 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것처럼(Burt, 1980), 스토킹 통념과 관련된 태도를 승인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에 대한 지각이 스토킹-

관련 행동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지지하는 유사한 신념들의 집합(즉 스토킹 통념 수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McKean, McEwan, 및 & Luebber(2014)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정당화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스토킹 인식의 기저에는 3가지 차원의 태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스토킹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스토킹은 낭만적인 것이다”, “피해자는 비난받아야 한다” 등이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을 보면, 전형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이러한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박지선, 2011; Komorosky, 2003; Nagel et al., 2005), 성희롱 통념에 대한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들 통념들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Sinclair(2012)는 스토킹통념 수용이 비네트(binet)에서 묘사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스토킹 통념들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연구(Kamphuis et al., 2005)에서도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참가자들이 비네트에서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적었다. 또한 스토킹 통념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McEwan 등(2014)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여성들 보다는 남성들이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념들을 더 수용하려 드는 반면 여성들은 통념을 부정하여 수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 성평등의식

성폭력 통념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역할태도와 같은 신념들이 기저를 이루는 성평등의식 혹은 성차별주의가 이들 통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최인숙, 김정인, 2015; Burt, 1980; Glick & Fisk, 1996).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는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들로서 이들의 구성개념은 특히 성평등의식 혹은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진다. 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별 역할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성, 공격적인 남성 그리고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계율을 강화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확대한다. 사회의 가부장적 속성은 성별 불평등과 성역할 고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지속적인 발생과 합리화에 작용한다(Belknap, 2001). 그렇다면 이러한 성역할 변인들은 스토킹 사건 지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성의 피해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스토킹 통념수용의 선행변수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강간통념을 수용할 가능성도 더 높았다(Lonsway & Fitzgerald, 1994). 따라서 전통적인 역할이 남성을 성적 관계의 주도자로 위치시키고 여성에게는 '문지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스토킹의 지각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유한 사람들은 스토킹과 관련된 통념들을 수용하고 그와 관련된 신념들을 지지할 가

능성이 더 높아야만 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승인한 남성들일수록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예, Dunlap, Hodell, Golding, & Wasarhaley, 2012; Philips, Quirk, Rosenfeld, & O'Connor, 2004). 그렇다면 앞서 성역할 태도 혹은 고정관념이 성평등주의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평등의식도 스토킹 통념 지각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성차별주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반영한 성평등의식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통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성차별주의(sexism)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과거의 성차별은 노골적이거나 명백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면, 현대적인 성차별은 과거와 달리 미묘하거나 암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Glick과 Fiske(1996, 1997)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성차별과 달리 현재의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주관적인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을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양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남성위주의 권력구조에 도전하는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우대하는 태도인 듯 보이지만, 실상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전통적 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 대해 보상을 주고 칭찬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지배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려는 의의도가 깔려 있다. 기존 연구(예,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최인숙, 김정인, 2015; Glick & Fiske,

2001)를 통해서 성차별주의는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Glick과 Fiske(1996, 1997)가 제안한 양가적 성차별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폭력 통념 중 피해자 비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순종적인 여성은 보상받고 또한 순수하고 순결해야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여성이 그들의 기대를 위반하게 되면, 즉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그 여성은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Abrams, Viki, Masser 및 Bohner(2003)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는 강간(acquaintance rape)의 사례에서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피해자 비난 현상은 강간과 같은 성폭력 사건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타의 폭력사건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권희경, 장재홍, 2003). 이는 결국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초래하여 성폭력과 범죄예방에 지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차별주의 간의 연구는 대부분 강간 혹은 성희롱과 같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스토킹 역시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성차별주의와 통념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통념은 이를 측정할 만한 도구가 없었던 관계로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성차별주의와 스토킹 통

념과의 관련성 및 그의 영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스토킹은 우리 사회에서 뿐만아니라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그 피해자가 15% 수준에 이를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사회구성원 및 대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행동을 이해하고, 스토킹 방지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스토킹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태도를 확인하고, 스토킹 인식의 토대가 되는 통념들이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1. 스토킹 문제를 남성과 여성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스토킹 통념,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는 성별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 2-1.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스토킹 통념, 성차별주의를 더 많이 수용하고, 성평등의식은 더 낮을 것이다.
  - 2-2.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스토킹 통념을 더 적게 수용할 것이다.
  - 2-3.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것이다.
  - 2-4.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것이다.
3.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는 스토킹 통념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방법 및 절차

### 조사대상자

조사는 서울시내 D여자대학교 대학원생, H 공공기관 직원, 경기도 G대학교 학생, J병원 직원 및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350부를 배포하여 295(회수율 82%)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8부를 제외한 287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여성은 201명(70.0%)이었고, 남성은 86명(30.0%)이었고,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 193명(67.2%), 직장인 73명(25.4%), 그리고 대학원생이 21명(7.3%)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17세였다.

### 조사도구

#### 스토킹에 대한 태도 및 통념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이건호(2002)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고 새로 첨가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토킹에 대한 통념은 Dunlap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스토킹 통념척도 22개 문항과 McKeon, McEwan 및 Luebber(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34개 문항을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40개의 문항 풀을 구성한 다음, 의미중복 및 통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항 8개를 제외한 32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스토킹에 대한 통념은 Likert Type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척도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요

인들에 대해서 요인I(고유가: 6.12, 설명변량: 19.12%)은 “사건 축소”로 명명하였고, 이어서 요인 II(고유가: 5.10, 설명변량: 19.95%)에 대해서는 “애정사건화”로, 요인 III(고유가: 3.92, 설명변량: 12.24%)에 대해서는 “비난과 책임귀인”으로 명명하였다.

#### 성차별주의

성차별주의 태도는 김현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이며 2개의 하위요인(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Glick과 Fisk(1996)가 제안한 것으로 일명 양가적 성차별주의라고도 부르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8개 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7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 성평등의식

본 연구에서는 안상수 등(2008)이 개발한 성인지력 척도(성평등의식, 성인지성, 실행의지 세부분으로 구성됨)에서 성평등의식 부분을 따로 뽑아서 이를 평가하였다. 성평등의식은 총 30개 문항으로, 가정생활영역, 직장생활영역, 제도/정책영역, 섹슈얼리티영역, 사회문화영역 등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문항 각각에 대하여 5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서는 하위요인별 1개 문항씩인 보충문항 5개를 제외한 총 25개 문항(요인별 각 5개 문항)이 분석 대상이었다.

####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문제에 입각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토킹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혹은 성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스토킹 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간 수용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스토킹 통념 수용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개 변인의 빈도와 누가백분율을 통하여 상위 30%는 높은(高)집단으로 하위 30%는 낮은(低)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 통념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문제에 입각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 태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남녀가 떠올린 생각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은 일방적 구애행위, 광팬, 집착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여자들은 거의 과반수가 일방적 구애행위를 떠올려서 스토킹을 구애사건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가

표 1. 스토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상	남자	여자
	빈도(%)	빈도(%)
일방적 구애행위	26(30.2)	98(48.8)
연예인, 유명인사 집착하는 광팬	26(30.2)	38(18.9)
헤어진 연인, 배우자 집착	27(31.4)	56(27.9)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	7(8.1)	9(4.5)
합계	86(100.0)	201(100.0)

표 2. 가장 전형적인 스토킹 행동은? 중복응답 3개

행동유형	남자	여자
	빈도(%)	빈도(%)
음란물 또는 혐오스러운 문서, 물건 등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23(8.9)	63(10.4)
지속적인 전화폭력(음란전화, 전화후 끊기, 음성메시지 남기기)	55(21.3)	123(20.4)
갑자기 불쑥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것	75(29.0)	181(30.0)
상대의 우편물을 훔쳐보거나 소지품을 훔쳐감	25(9.7)	43(7.1)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혹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를 함	29(11.2)	86(14.3)
상대방의 주변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거나 괴롭힘	12(4.7)	46(7.6)
만남을 요구하며 집, 자동차같은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26(10.1)	36(6.0)
상대방이 떠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13(5.1)	25(4.2)
합계	258(100.0)	603(100.0)

표 3. 스토킹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판단기준	남자	여자
	빈도(%)	빈도(%)
나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행위여부	60(69.8)	140(67.9)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8(9.3)	21(10.4)
신체안전에 위협과 두려움 유발	18(20.9)	40(19.9)
합계	86(100.0)	201(100.0)

표 4. 스토킹에 대한 주요 동기는

동기	남자	여자
	빈도(%)	빈도(%)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20(23.3)	27(13.4)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착각 때문	16(18.6)	58(28.9)
예전관계를 회복하려는 집착 때문	9(10.5)	14(7.0)
상대의 애정거부에 대한 분노와 보복	11(12.8)	24(11.9)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고 지배	25(29.1)	69(34.3)
아무런 이유가 없다	2(2.3)	2(1.0)
기타	3(3.4)	7(3.5)
합계	86(100.0)	201(100.0)

표 5.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응방법	남자	여자
	빈도(%)	빈도(%)
일종의 폭력이므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58(67.4)	184(91.5)
형사처벌은 찬성하지만 현재는 시기상조	10(11.6)	12(6.0)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	6(7.0)	1(.5)
잘 모르겠다	12(14.0)	4(2.0)
합계	86(100.0)	201(100.0)

가장 대표적인 스토킹 행동으로 분류되는 8가지 행위 중 3가지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응답자들은 남녀 모두 갑자기 불쑥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것을 가장 전형적

표 6. 스토킹 통념에 대한 남녀 비교

변인	성별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스토킹통념	남성(N=82)	2.10(.54)	.377	5.45**
	여성(N=194)	1.72(.51)		
심각성축소	남성(N=84)	1.99(.57)	.440	6.11**
	여성(N=199)	1.55(.54)		
하위 요인	애정사건화	남성(N=83)	.330	3.31**
		여성(N=201)		
비난과책임귀인	남성(N=85)	2.05(.64)	.391	5.09**
	여성(N=196)	1.66(.56)		

\*p<.05, \*\*p<.01

인 스토킹행위로 보았고, 이어서 ‘지속적인 전화폭력(음란전화, 전화후 끊기, 음성메시지 남기기)’이 2위, 그리고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혹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시도를 함순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판단 기준은 법률상의 정의에 입각해서 세 가지 구성요건 즉, 일방적, 반복적, 두려움 유발 중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일방적 행위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보았다. 이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권리침해를 우선 요건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의 주요 동기는 남녀 모두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동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동기는 남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인 반면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세 번째는 반대로 응답(남: 사랑, 여: 관심)하여 남녀 간에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스토킹의 주요 동기는 상대를 소유물로 인식하여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대부분 이것이 일종의 폭력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응답자들은 처벌과 관련된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응답내용에서 ‘처벌에 대한 시기상조’ 부분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잠재적 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둘째, 스토킹 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 및 집단비교

먼저 스토킹 통념을 비교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45, P<.01$ ).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스토킹과 관련한 통념들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며, 하위 요인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념 중 애정사건화 부분은

남녀 간의 지각차를 보일 뿐만아니라( $t=3.31, p<.01$ ), 타 요인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녀 모두 스토킹을 애정사건의 맥락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녀 간의 시각차가 두드러진 것은 심각성축소( $t=6.11, p<.01$ )인데, 여기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스토킹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의식에도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8.91, p<.01$ ). 전체 점수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차와 관

련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준 것은 제도 및 정책영역(사회적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평등과 성차별적의 갈등적 요소에 대한 태도)이었으며( $t=-10.46, p<.01$ ),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것은 가정생활영역(가정 내 성역할 수행, 자녀교육, 부부권한과 같이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이었다( $t= -5.38, p<.01$ ).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성차별주의에 대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주의 척도 상에서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7.28, p<.01$ ). 한편 성차별주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남녀 간에 차이( $t=3.90, p<.01$ )가 있기는 하나 시각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도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인 역할

표 7. 성평등의식에 대한 남녀비교

변인	성별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성평등의식	남성(N=84)	3.53(.67)	-.70	-8.91**
	여성(N=198)	4.24(.57)		
가정생활영역	남성(N=86)	3.75(.70)	-.46	-5.38**
	여성(N=199)	4.21(.65)		
직장생활영역	남성(N=86)	3.39(.78)	-.71	-7.66**
	여성(N=199)	4.11(.69)		
하위영역	남성(N=86)	3.35(.82)	-.95	-10.46**
	여성(N=198)	4.31(.64)		
섹슈얼리티	남성(N=85)	3.89(.73)	-.62	-7.69**
	여성(N=199)	4.52(.57)		
사회문화영역	남성(N=85)	3.26(.93)	-.77	-7.37**
	여성(N=1990)	4.04(.75)		

\* $p<.05$ , \*\* $p<.01$

표 8.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비교

변인	성별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성차별주의	남성(N=86)	2.68(.59)	.58	7.28**
	여성(N=199)	2.09(.63)		
하위 요인	적대적차별	남성(N=86)	.81	8.67**
		여성(N=201)		
	온정적차별	남성(N=86)	.32	3.90**
		여성(N=199)		

\*p<.05, \*\*p<.01

에 부합되는 여성들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폭력피해에서 피해자 책임 및 비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여성폭력피해 발생의 구조적 및 사회적 측면보다는 개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수용은 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 비난과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 구제 혹은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평등의식이 스토킹 통념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통념 수용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스토킹 통념을 더 적게 수용하였다( $t=14.91, p<.01$ ). 특히 집단 간에 큰 시각차를 보인 부분은 애정사건화였다.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토킹 사건을 애정사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9. 스토킹 통념지각에 대한 성평등의식 상하집단 비교

변인	성평등의식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스토킹통념	낮음(N=82)	2.28(.48)	.91	14.91**
	높음(N=87)	1.37(.28)		
심각성축소	낮음(N=83)	2.11(.58)	.86	12.39**
	높음(N=90)	1.25(.28)		
하위 요인	애정사건화	낮음(N=82)	1.11	11.89**
		높음(N=90)		
비난과책임귀인	낮음(N=83)	2.24(.64)	.94	12.2**
	높음(N=87)	1.30(.31)		

\*p<.05, \*\*p<.01

표 10. 스토킹 통념지각에 대한 성차별주의 하위요인의 상하집단 비교

		적대적 성차별주의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스토킹통념 전체	낮음(N=86)		1.40(.34)	-.80	-12.91**
	높음(N=97)		2.21(.49)		
심각성 축소	낮음(N=90)		1.29(.33)	-.73	-10.8**
	높음(N=98)		2.02(.57)		
하위 요인	애정사건화	낮음(N=91)	1.83(.68)	-1.05	-11.16**
		높음(N=98)	2.89(.62)		
	비난과책임귀인	낮음(N=87)	1.35(.35)	-0.83	-11.31**
		높음(N=99)	2.18(.62)		
		온정적 성차별주의	평균(SD)	평균차	t값(*유의도)
스토킹통념 전체	낮음(N=86)		1.46(.35)	-.68	-10.37**
	높음(N=106)		2.14(.55)		
심각성 축소	낮음(N=91)		1.36(.39)	-.60	-8.30**
	높음(N=107)		1.96(.62)		
하위 요인	애정사건화	낮음(N=91)	1.88(.61)	-.90	-9.41**
		높음(N=106)	2.74(.71)		
	비난과책임귀인	낮음(N=88)	1.40(.41)	-.71	-9.27**
		높음(N=107)	2.12(.65)		

\*p<.05, \*\*p<.01

표 10에서는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인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입각해서 스토킹 통념을 비교하였는데,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한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 앞서 성평등의식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주의에서 가장 큰 시각차를 보여준 것은 바로 애정사건화였다. 성차별주의 태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스토킹 사건을 애정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 및 그 하위요인들이 스토킹 통념지각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 태도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이들 변인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의식과 스토킹 통념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65$   $p<.01$ ), 성차별주의와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78$ ,  $p.01$ ). 결국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스토킹 통

표 11. 스토킹통념,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 및 각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평등의식	1								
(2) 가정생활영역	.86**	1							
(3) 직장생활영역	.92**	.75**	1						
(4) 제도및정책	.86**	.62**	.77**	1					
(5) 섹슈얼리티	.87**	.70**	.72**	.76**	1				
(6) 사회문화영역	.89**	.74**	.81**	.66**	.69**	1			
(7) 성차별주의	-.78**	-.62**	-.75**	-.68**	-.68**	-.70**	1		
(8) 적대적차별	-.78**	-.59**	-.76**	-.74**	-.70**	-.67**	.93**	1	
(9) 온정적차별	-.59**	-.53**	-.56**	-.44**	-.48**	-.58**	.86**	.62**	1
(10) 스토킹 통념	-.65**	-.58**	-.55**	-.59**	-.65**	-.55**	.63**	.61**	.53**

\*p<.05, \*\*p<.01

념도 덜 수용하고, 성차별주의 태도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차별주의와 스토킹통념은  $r=.64(p<.01)$ 라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성차별주의적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토킹 통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2는 스토킹에 대한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설명력보다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과 설명량을 보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차별주의 보다는 성평등의식이 더 많은 설

표 12. 스토킹통념에 대한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와 각 하위요인들의 회귀분석결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Delta R^2$
		B	Std.Error	Beta		
스토킹통념	성평등의식	-.32	.05	-.45	-5.76**	.42
	성차별주의	.25	.05	.31	4.46**	.47
스토킹통념	적대적성차별	.30	.04	.45	7.41**	.37
	온정적성차별	.19	.05	.24	3.93**	.40
스토킹통념	섹슈얼리티	-.29	.06	-.36	-4.68**	.42
	가정생활영역	-.16	.05	-.21	-3.32**	.45
	제도 및 정책	-.12	.04	-.18	-2.55*	.47

\* p<.05, \*\* p<.01



명력( $R^2 = .42, P < .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차별주의 및 성평등의식의 하위 요인별 회귀분석결과 성차별주의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R^2 = .37, P < .01$ ), 성평등의식에서는 섹슈얼리티( $R^2 = .42, P < .01$ )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통념지각에는 일차적으로 성평등의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 태도, 스토킹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 및 그 관련성, 그리고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 통념지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문제로 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 가지 연구결과에 입각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 태도

스토킹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남자들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 스타에게 집착하는 광팬, 그리고 일방적 구애 행위 등에서 비슷한 비율로 연상을 한 반면, 여성들은 거의 과반수가 일방적 구애행위를 떠올리고 이어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 혹은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떠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스토킹을 폭력과 연관된 심각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누군가의 구애과정에서

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구애과정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구애과정으로의 인식은 대표적 스토킹 행동을 갑자기 불쑥 집으로 찾아오거나 집주변을 계속해서 맴도는 것(29.7%)으로 지목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스토킹 동기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에 대한 '통제나 지배'가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이어서 등장한 동기는 여성들은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들은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결국 스토킹은 상대에 대한 통제나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에 의한 일방적 구애로서 사랑에 대한 착각과 관심 끌기 행동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에서는 응답자들이 일종의 폭력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스토킹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Tjaden & Thoennes(2000)의 연구에서는 18세 이후에 강간, 신체폭행 및 스토킹을 당한 여성의 64%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Björklund 등(2010)은 그들의 연구에서 피해자와 파트너 관계였던 스토킹자들이 스토킹 기간도 더 길었고, 폭력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스토킹 예방교육 시 스토킹에 대한 일반적 인식, 즉 스토킹은 낯선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애행위가 아님을 강조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지배와 통제 의도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임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과도한 집착은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스토킹 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에 대한 성별 인식 및 집단비교

이들 세 변인들에 대해 남녀 간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토킹통념수용과 성차별주의에 대한 수용도는 남성들이 더 높았고, 성평등의식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최인숙, 김정인, 2015; Glick & Fiske, 2001; McEwan et al., 2014).

연구결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스토킹 통념을 지지한다는 Sinclair(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남성들이 이러한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동부정 및 정당화로 인하여 그 만큼 스토킹을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의 문제점은 이것이 남성들에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평균적으로 남성보다는 적지만 그들도 이와 같은 통념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통념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애정사건화 요인의 경우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남녀 모두 타 요인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

은 남녀 모두 스토킹을 '실연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떠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거나 구애의 극단적 형태'로 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통념과 달리 스토킹 통념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스토킹 행동을 낭만적 관계(혹은 집요한 구애)에 의해서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Dunlap et al., 2015). 어느 사회에서건 집요한 구애에 관한 긍정적 신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스토킹이 로맨스를 주저하는 여성을 남자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으로 결부 짓는 문화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면 이해할만 할 것이다(Lee, 1998).

한편 남녀 간의 시각차가 두드러진 것은 심각성측소( $t=6.11, p<.01$ )인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스토킹 문제를 심각한 사안이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스토킹 행위도 느슨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위 요인인 피해자 비난과 책임귀인 부분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태도는 애정사건화와 결합하여 관계파탄 및 그로 인한 스토킹 사건 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연인관계가 깨졌을 때,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스토킹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들의 스토킹 통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도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섹슈얼리티 영역(남성과 여성의 이성관계, 성적대상화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태도)은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어 남녀가 양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다. 한편 성별 차와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준 것은 제도 및 정책영역(사회적 구조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평등과 성차별적의 갈등적 요소에 대한 태도)이었으며( $t=-10.46, p<.01$ ),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것은 가정생활영역(가정내 성역할 수행, 자녀교육, 부부권한과 같이 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이었다( $t=-5.38, p<.01$ ). 이러한 결과는 일상에서의 양성평등의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대체로 남성들은 양성평등한 세상이 되었다고들 이야기 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변화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다. 그러나 가정을 벗어나 사회적 현실에서의 관련 통계는 여전히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차별주의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t=7.28, p<.01$ ). 이러한 성차별주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남녀 간에 차이( $t=3.90, p<.01$ )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각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도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일부 수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역할에 부합되는 여성들만을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성차별주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Abrams et al, 2003).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도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스토킹 사건이 친밀한 혹은 아는 관계에

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더불어,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아는 사람(acquaintance)에 의한 강간의 사례에서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Abrams 등(2003)의 연구가 시사해주는 바는 크다. 결국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수용은 폭력사건에 대해 피해자 비난과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 구제 혹은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의 평가를 통해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통념 수용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스토킹 통념을 더 적게 수용하였으며( $t=14.91, p<.01$ ), 추가로 하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큰 시각차를 보인 부분은 애정사건화였다. 즉 성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토킹 사건을 애정사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반적인 결과를 놓고 볼 때, 스토킹 유발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스토킹 통념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념자체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의식 함양을 통해서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차별주의에 입각해서도 스토킹 통념을 비교하였는데, 성차별주의가 강한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스토킹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며( $t=-12.56, p<.01$ ). 성차별주의에서는 앞서 성평등의식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시각차를 보여준 것은 바로 애정사건화였다. 성차별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토킹 사건을 애정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결국 스토킹 통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의 가치와 태도인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를 변화시킴으로써

스토킹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 및 그 하위요인들이 스토킹통념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의식, 성차별주의 및 그 하위요인들이 스토킹 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스토킹통념, 성평등의식 및 성차별주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의식은 성차별주의( $r=-.78, p<.01$ ) 및 스토킹 통념( $r=-.65, p<.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성차별주의와 스토킹 통념은  $r=.63(p<.01)$ 이라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차별적 태도는 적어지며, 스토킹통념도 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성차별주의적 태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토킹 통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토킹통념척도가 2012년 이후에 개발된 관계로 성평등주의 및 성차별주의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들을 찾을 수 없지만, 성폭력 통념과의 관계성을 입증한 연구들(권희경, 장재홍, 2003; 최인숙, 김정인, 2015)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에서 아쉬운 결과 중의 하나는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들과 스토킹 통념상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스토킹 통념 하위요인 중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귀인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두 번째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이 둘 간의 관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추후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 중 어느 변인이 스토킹 통념 수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인을 스토킹 통념에 회귀시켜 보았다. 그 결과 두 변인 다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성평등의식이 1차로 투입되어 대부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스토킹 및 그와 관련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에서는 우선적으로 성평등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하위 요인별 회귀분석결과 성차별주의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성평등의식에서는 섹슈얼리티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요인별 분석결과 성평등의식 교육의 경우 섹슈얼리티 부분을 강조하고, 성차별주의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제를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언을 해본다면, 스토킹 통념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토킹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스토킹 행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스토킹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 바로잡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성평등의식 교육과 성차별주의 해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스토킹과 더불어 행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미국내에서 여성의 1/3 이상이 그들의 생애에서 특정 시점에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서 신체적 폭행, 강간, 혹은 스토킹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Black 등,

2011).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와같은 현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집행자들에 대한 통념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의한 행동이 전(前) 연인이나 지인(知人)에 의한 행동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잘못된 통념수용의 결과). 최근의 Scott 등(2013)의 연구와 Weller(2013)의 연구에서도 특별 교육을 받고 스토킹 사례를 직접 다룬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조차도 낯선 스토키들을 더 심각하게 혹은 더 위협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사회에서나 널리 만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지각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실-세계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낯선 이들은 이전에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스토키들에 비해 스토킹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적었고, 신체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훨씬 적었고(McEwan, Mullen, & MacKenzie, 2009; McEwan, Mullen, MacKenzie, & Ogloff, 2009),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이 더 지속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렇다면 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의 스토킹에 관한 오지각(misperception)은 스토킹 사건을 지각하고 다루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선에서 스토킹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집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통념과 사건지각과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나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아쉬운 것은 예상치 않게 설문지를 배포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조사대상자가 성별로 그 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초적인 통계분석에서 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분석과정에서는 동변량성 여부를 고려하여 통계값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을 성별로 균형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며, 대학생 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일반성인 대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권희경, 장재홍 (2003). 성희롱, 성폭력, 성적 태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자기손해적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김정인 · 손영미 ·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김현정 (1998).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동기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선 (2011). 경찰대 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도: 일반대 학생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대학논문집, 제 31집, 237-267.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2000). 스토킹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상수, 김이선, 박군석, 이상화, 김정인 (2008).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척도(K-ASD)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7-38.

- 이건호, 김은정, 황지태 (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 이석재 ·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9, 97-116.
- 이정호 (2004). 스토킹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2006).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비교. 형사정책연구, 17(4), 363-396.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 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 Abrams, D., Viki, G. T. N.,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Amar, A. F. (2007). Behaviors that college women label as stalking or harassment. *Journal of American Psychiatric Nursing Association*. 13: 210-220.
- Belknap, Joanne. (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Group.
- Björklund, K., Häkkänen-Nyholm, H., Sheridan, L., & Roberts, K. (2010). The Prevalence of stalking among Finnis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 684-698.
- Black, M. C., Basile, K. C., Breiding, M. J., Smith, S. G., Walters, M. L., Merrick, M. T., Chen, J., & Stevens, M. R. (2011).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 summary report*. Atlant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Buhi, E. R., Clayton, H., & Surrency, H. H. (2008). Stalking victimization among college women and subsequent help-seeking behavior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 419-425.
- Burgess, A. W., Baker, T., Greening, D., Hartman, C. R., Burgess, A. G., Douglas, J. E., & Halloran, R. (1997). Stalking behavior within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4), 389-403.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ho, H. K., Hong, J. S., & Logan, T. K. (2012). Ecological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talking behavior: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27(4), 381-390.
- Copson, G., & Marshall, N. (2002). Police care and support for victims of stalking. In J. Boon & L. Sheridan (Eds.),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pp. 49-62). Chichester, UK: Wiley.
- Cupach, W. R., & Spitzberg, B. H. (2000).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Incidence, perceived severity and coping. *Violence & Victims*, 15, 357-372.
- Dunlap, E. E., Hodell, E. C., Golding, J. M. & Wasarhaley, N. E. (2012). Mock jurors' perception of stalking: The impact of gender and expressed fear. *Sex Roles*, 66, 405-417.

- Dunlap, E. E., Lynch, K. R., Jewell, J. A., Wasarhaley, N. E., & Golding, J. M. (2015). Participant gender, stalking myth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ing in perceptions of intimate partner stalk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Psychology, Crime & Law, vol 21*(3), 234-253.
- Egan, R. & Wilson, J. C. (2012). Rape victims' attitudes to rape myth acceptance. *Psychiatry, Psychology & Law, 19*, 345-357.
- Fremouw, W. J., Westrup, D., & Pennypacker, J. (1997). Stalking on campus: the prevalences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alking.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2*, 666-669.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m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 Hall, D. M. (1998). The victim of stalking. In J. Reid Meloy (ed.),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pp. 113-137).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armon, R., Rosner, R., & Owens, H. (1995). Obsessional harassment and erotomania in criminal court populatio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0*, 188-196.
- Jones, C. (1996). Criminal harassment (or Stalking). *Juristat, 16*(12).
- Jordan, C. E., Wilcox, P. & Pritchard, A. J. (2007). Stalking acknowledgement and reporting among college women experiencing intrusive behaviors: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e of a "classic stalking cas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5), 556-569.
- Kamphuis, J. H., Galeazzi, G. M., DeFazio, L., Emmelkamp, P. M. G., Farnham, F., Groenen, A., James, D., & Vervaeke, G. (2005). Stalking perceptions and attitudes amongst helping professions: An EU cross-national comparis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 15-225.
- Komorosky, D. (2003). *Predictors of Rape Myth Acceptance Among Criminology and Non-Criminology Studen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Criminology,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ee, R. K. (1998). Romantic and electronic stalking in a college context. *William & Mary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4*, 373-409.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alamuth, N., Check, J. V. P., & Briere, J.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30-340.
- McEwan, T. E., Mullen, P. E., & MacKenzi, R. (2009). A study of the predictors of persistence in stalking situations. *Law and Human Behaviors, 33*, 149-158.
- McEwan, T. E., Mullen, P. E., MacKenzi, R. &

- Ogloff, J. R. P. (2009). Violence in stalking situations. *Psychological Medicine: A Journal of research in Psychiatry and the Allied Science*, 39, 1469-1478.
- McKeon, B., McEwan, T. E., & Luebbbers, S. (2014). "It's not really stalking if you know the person": Measuring community attitudes that normalize, Justify and minimise stalking.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1-16.
- McNamara, C. L., & Marsil, D. F. (2012). The prevalence of stal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disparity between researcher and self-identified victimization.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0(2), 168-174.
- Meloy, J. R. (ED)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s*. Academic Press, San Diego.
- Meloy, J. R., & Gothard, S. (1995). A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6, 529-536.
- Mullen, P. E., Pathe, M.,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1244-1249.
- Mullen, P., Pathe, M., & Purcell, R. (2001). Stalking: new constructions of human behavior, *Australian and New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 916.
- Nagel, B., Matsuo, H., McIntyre, K. P., & Morrison. N. (2005). Attitudes toward victims of rape: Effects of gender, race, religion, and social cla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725-737.
- Pathè, M. & Mullen, P. E. (1997). The impact of stalkers on their victim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 12-17.
- Pearce, A., & Eastal, P. (1999). The "Domestic" in stalking: policing domestic stalking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lternative Law Journal*, 24, 165-174.
- Peterson, Zoe D. & Charlene L. Muehlenhard. (2004). "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51), 129-144.
- Phillips, L., Quirk, R., Rosenfeld, B., & O'Connor, M. (2004). Is it stalking? Perceptions of stalking among college undergradu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 73-96.
- Quackenbush, R. L. (1989). A comparison of androgynous, masculine sex-typed and undifferentiated males on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318-342.
- Rhatigan, D. L., & Streat, A E. (2005).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580-1597.
- Scott, A. J., Nixon, K., & Sheridan, L. (2013). The influence of prior relationship on perceptions of stalking. A comparison of laypersons, nonspecialist police officers, and specialist police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 1434-1448.
- Sheridan, L., & Davies, G. M. (2001). What is stalking? The match between legislation and public perceptio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6(1), 3-17.



- Sheridan, L., Gillett, R., & Davies, G. (2000). Stalking: Seeking the victim's perspective. *Psychology, Crime, & Law*, 6, 267-280.
- Sinclair, H. C. (2012). Stalking myth-attributions: Examining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les on attributions in unwanted pursuit scenarios. *Sex Roles*, 66, 378-391.
- Spitzberg, B. H., & Cadiz, M. (2002). The media construction of stalking stereotyp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9, 128-149.
-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7). The state of the art of stalking: Taking stock of the emerging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64-86.
- Spitzberg, B. H., Cupach, W. R., & Ciceraro, L. D. (2010). Sex differences in stalking and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two meta-analyses. *Partner Abuse*, 1, 259-285.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Thomas, S. D. M., Purcell, R., Path'e, M., & Mullen, P. E. (2008). Harm associated with stalking victimization. *Aust N Z J Psychiatry*, 42, 800-806.
- Tjaden, P. & Thoennes, N. (1998).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hington, DC.
- Tjaden, P., & Thoennes, N. (2000).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male-to-female and partner violence as measured by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6, 142-162.
- Weller, M., Hope, L., & Sheridan, L. (2013). Police and public perceptions of stalking: the role of prior victim offender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 320-339.
- Westrup, D. (1998). Applying functional analysis to stalking behavior. In J. R. Meloy (Ed.), *The psychology of stalking: Clinical and forensic perspective* (pp. 275-294).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1차원고접수 : 2016. 01.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3. 11.  
최종원고접수 : 2016. 03. 20.

## The Effects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ambivalent sexism on the acceptance of stalking myths

Cho Moo-yong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Kim Jeong-In

Research Institute for  
Divers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le and female's general attitudes of stalking,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ism on the acceptance of stalking myths. The participants were 287 (201 females, 86 males). Frequency, t-test,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nsidered stalking as an events to occur in romantic or intimate relationships. They perceived the motive of stalking as a control and dominance of others. Female participants were higher than male on gender egalitarianism, and male were higher than female on stalking myths and ambivalent sexism. The participants to have high sexism had a higher stalking myths acceptance than participants to have low. In contrast, the participants to have high gender egalitarianism had a lower stalking myths acceptance than participants to have low.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stalking myths. Correlations between sexism and stalking myths were positive. Stalking myths were regressed on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ism. It was found that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ism explained 42% and 5% of the variance of stalking myths respectively. These finding showed that the acceptance of stalking myth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gender egalitarianism and sexism. There for, to prevent stalking, it should be corrected wrong myths of stalking,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increased the gender egalitarianism, and needed education correcting the sexism.

*Key words* : Stalking, stalking myth, gender egalitarianism, ambivalent sexism